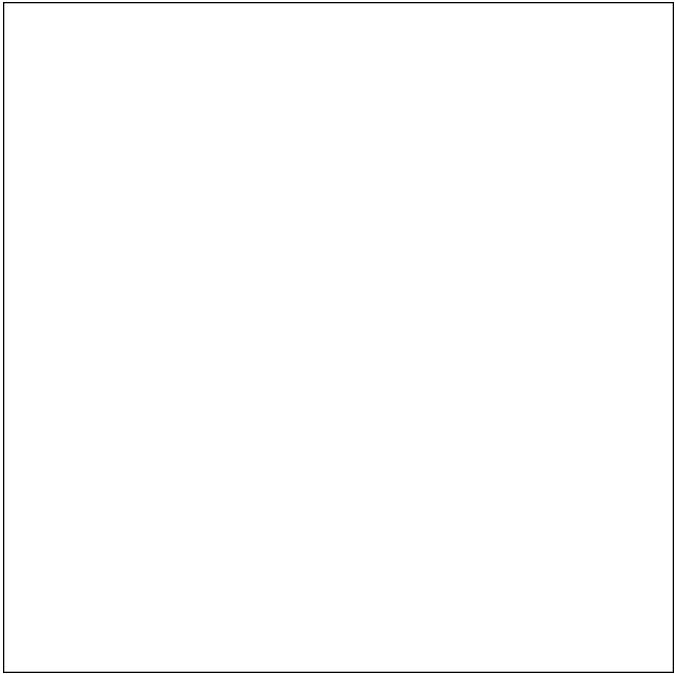




(imageless edition)

Nina Orange ✎
Wiehan de Jager 🗣️
Jong Yong Park 📄
Korean 🗣️
Level 4 📖



부시의 누나가 마한 것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부시의 누나가 마한 것

Written by: Nina 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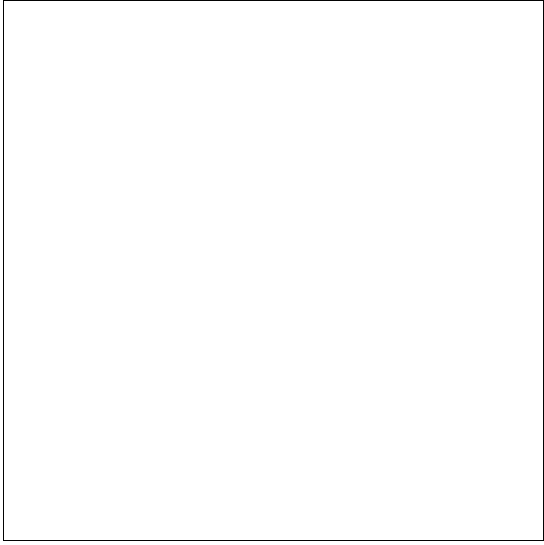
Illustrated by: Wiehan de Jager

Translated by: Jong Yong Park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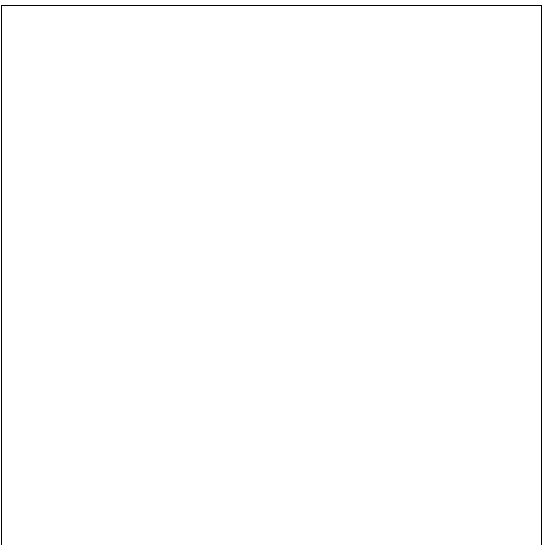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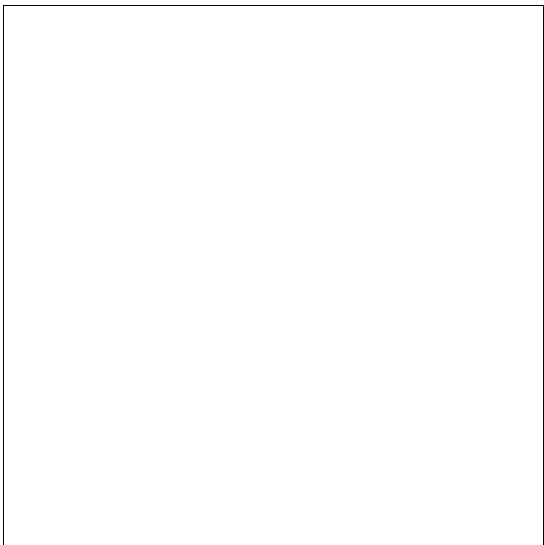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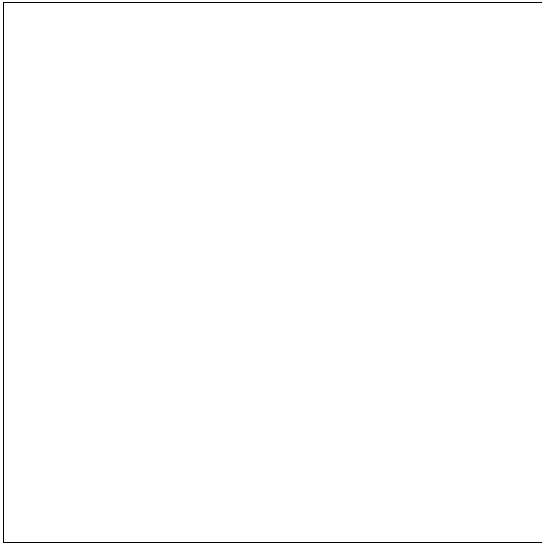
한 이른 아침 부시의 할머니가 그를 불렀어요. “부시야,
이 달걀을 부모님한테 가져다 드리렴. 네 누나의 결혼
식을 위해 큰 케익을 만들고 싶어하실거야.”

부머디께포 가는 길에, 부시는 과령릉따는 두 소년릉
만났어요. 한 소년은 부시의 탄칼릉 찾아나무르던 찰
어요. 탄칼릉 깨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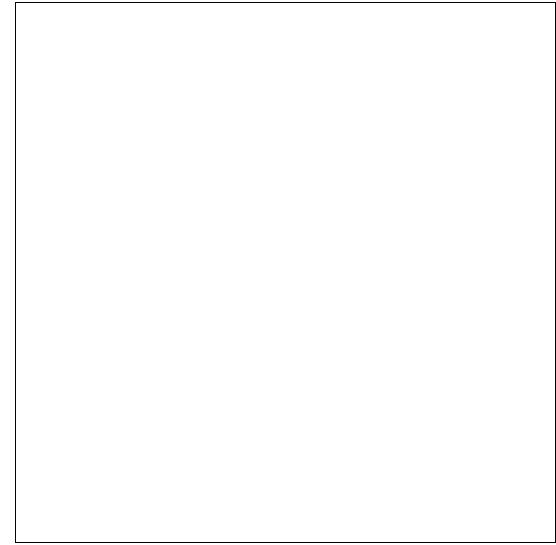


부시의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부시, 내
몸 생애, 나에게 선물은 상관없어. 케익도 상관없다구! 우
린 모두 여기 함께 있고, 난 행복해. 이제 네 좋은 옷들
 입고 이 탄릉 즐기자!" 그래서 부시는 그렇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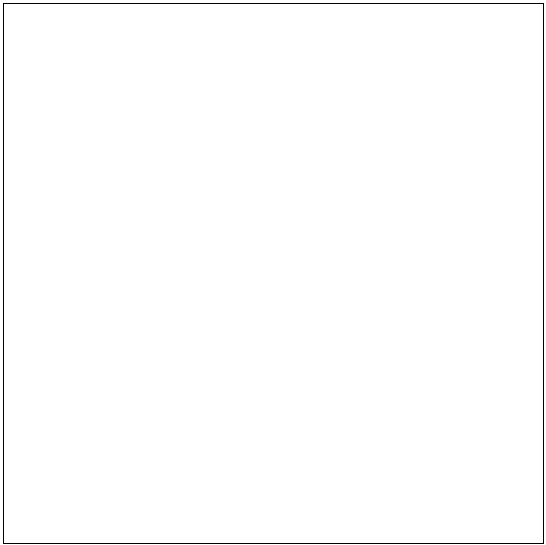


“무슨 짓을 한거야?” 부시가 외쳤어요. “그 달걀은 케익을 위한거였어. 케익은 내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거였어. 결혼 케익이 없으면 내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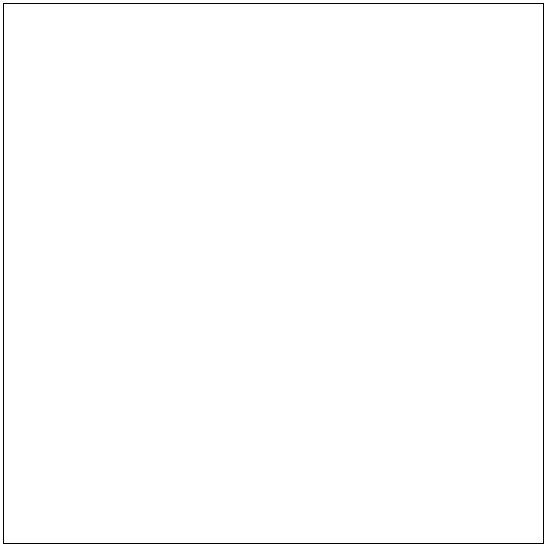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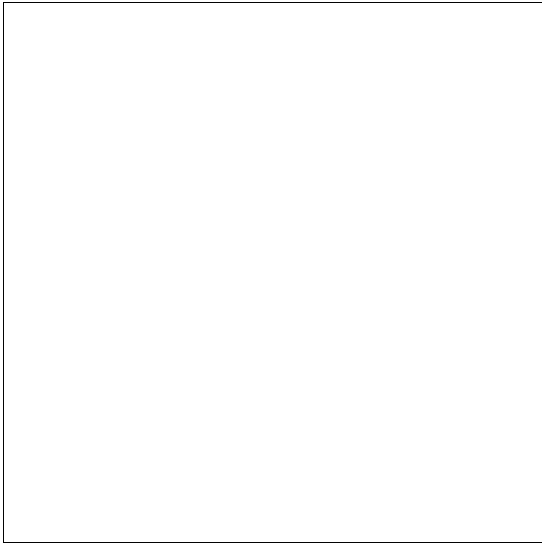
“어떡하면 좋지?” 부시가 외쳤어요. “달아난 소는 인부들이 준 짚단을 대신한 선물이었어. 인부들이 지팡이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 짚단을 준거야. 과일 따는 아이들이 케익을 위한 달걀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준거구. 그 케익은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 거였어. 이제 달걀도, 케익도, 선물도 없어.”

소년들은 부시에게 잔단진 것을 미안해했어요. "케이
링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여기 누나를 위한 지팡이가 있
어." 한 소년이 말했어요. 부시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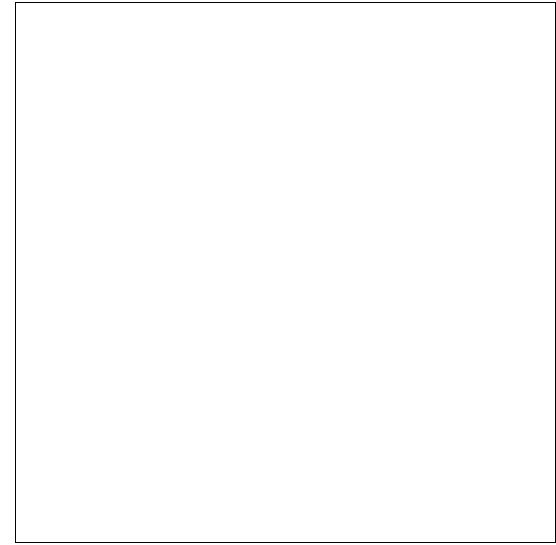


하지만 저녁시간이 되자 소는 울부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부시는 여행중에 킨를 잃었어요. 그는 누나의
결혼에 매우 늦었어요. 손님들은 이미 먹고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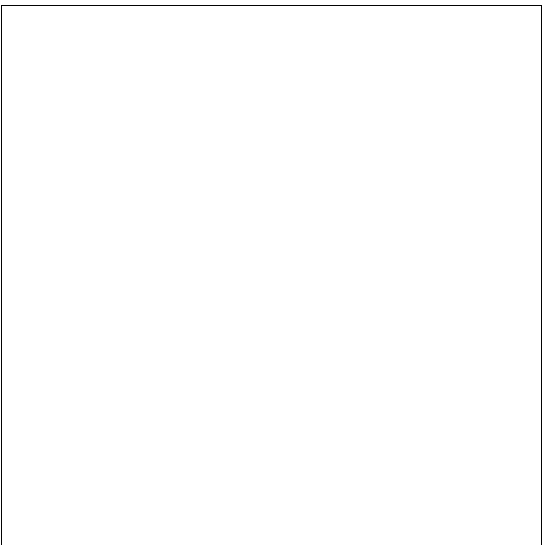


가는 길에 집을 짓고 있는 두 남자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 튼튼한 막대기를 쓸 수 있을까?” 한 남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막대는 집을 지을 만큼 튼튼하지 않았고, 부러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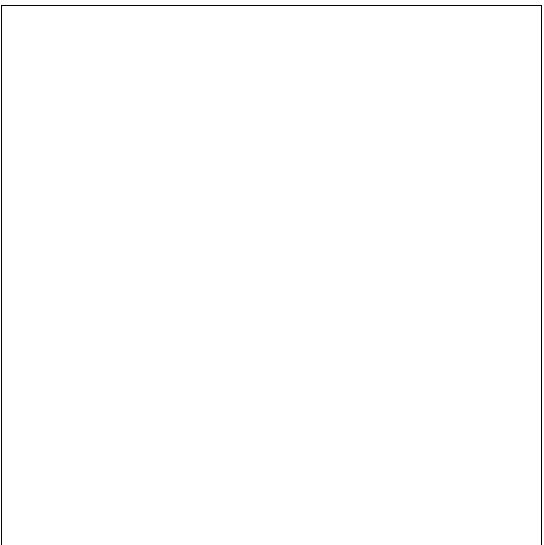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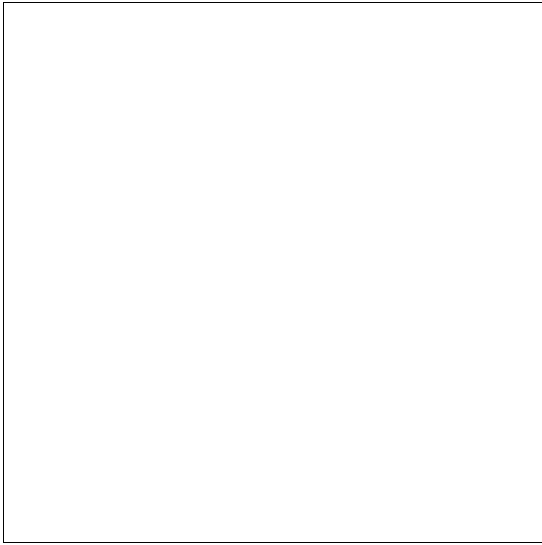
소는 욕심부린 것에 미안해했어요. 농부는 소가 누나를 위한 선물로 부시와 함께 가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부시는 계속해서 갔어요.

“무슨 짓을 한거예요?” 부시가 외쳤어요. “그 지원은
 누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과일 따는 아이틀이 케익를
 위한 탄량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지원을 쫓겨라구
 공. 그 케익은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 거였어요. 이제 탄
 량도, 케익도, 선물도 없어요. 제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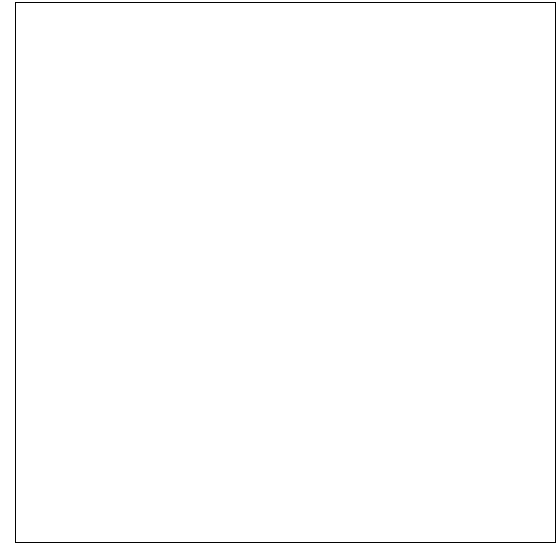


“무슨 짓을 한거야?” 부시가 외쳤어요. “그 직단은 누
 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인부들이 지원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 직단을 쫓겨라구. 과일 따는 아이틀이 케익
 를 위한 탄량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지원을 쫓구. 그
 케익은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 거였어. 이제 탄량도, 케
 익도, 선물도 없어.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인부들은 지팡이를 부러뜨린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케익을 도와줄 순 없지만, 여기 누나를 위한 짬단이 있단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부시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가는 길에 집을 짓고 있는 농부와 소를 만났어요. “맛있게 생긴 짬단이로구나, 내가 맛봐도 되겠니?” 소가 물었어요. 하지만 짬단이 너무 맛있던 나머지 소가 다 먹어버렸어요!